■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97-129.
http://doi.org/10.17948/kcs.2020..87.97

공민왕 초기 印瑠의 활동

김갑동(金甲童)*

목 차

1. 머리말
2. 무장으로서의 활약
3. 공민왕 5년의 반원정책과 인당
4. 맺음말

국문초록

印瑠은 공민왕대에 이르러 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먼저 그는 萬戶, 捕倭使의 직책으로 왜구를 격퇴하였다. 그러다가 공민왕 3년에는 아들인 印安과 함께 원의 남정군 출정에 참여하였다. 그것은 물론 원을 돕는 행위였으나 원의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하여 돌아와서는 그 사정을 공민왕에게 자세히 보고함으로써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동왕 5년 친원 핵심 세력인 기씨 일당을 제거한 직후 영토 수복에 착수하였다. 공민왕은 두 방면으로 영토 수복을 명하였다. 하나는 동북면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북면 방향이었다. 密直副使 柳仁雨를 東北面兵馬使로, 前 大護軍 貢天甫, 前 宗簿令 金元鳳을 副使로 임명하여 雙城 등 지역을 수복하게 하였다. 한편 인당과 강중경을 서북면병마사로 삼고 신순, 유홍, 최영, 최부개를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 8참을

*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燕邸隨從功臣이었던 강중경과의 불화로 그를 제거하였다. 이어 그는 원 나라의 연호인 至正 연호의 사용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정 속에서 인당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한편 서북면으로 출동한 인당은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婆娑府 등 3站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작전은 원의 군사적 출동에 대비하는 한편 원에 오가는 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기철 일당의 제거나 쌍성총관부 공격 등의 고려 내부 사정이 원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고려에 오다 체포되었던 원의 사신이 도망하여 원에 돌아감으로써 고려의 내부 사정이 다 알려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원에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한 것에 대해 힐책하면서 대군을 동원해 침략할 것이라 위협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염제신의 계책을 받아들여 인당의 목을 베어 사과하였다. 특별히 인당 한 사람만을 처형한 것은 자신의 심복이었던 강중경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었다. 이에 원은 고려의 사과를 받아 주었고 고려에서는 이에 감사하는 표문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주제어: 인당, 왜구, 공민왕, 파사부, 쌍성총관부, 석기.

1. 머리말

고려말기는 '원 지배기', 또는 '원 간섭기'로 표현되는 시기였다. 원의 부마국으로서 원 나라의 간섭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왕들은 죽은 뒤의 시호에 모두 '충성 忠'자를 붙여야 했다. 충렬왕을 비롯해 충선왕, 충숙왕, 충목왕 등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충'자가 들어가지 않는 왕이 있었다. 그는 바로 공민왕이었다.

공민왕도 부인을 몽고 황실에서 맞아와야 했고 다른 왕들처럼 몽고의 수도에서 10여 년간이나 質子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즉위하자마자 반원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내었고 동왕 5년에는 반원개혁과 영토수복을 꾀하였다.[1] 그 과정에서 서북면 공격의 책임을 맡았던 印瑬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1) 공민왕 초기의 반원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민현구, 「고려 공민왕의 반원적 개혁정치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제68호, 진단학회, 1989; 「고려 공민왕대 반원적 개혁정치의 전개과정」, 『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론총』, 일조각, 1993; 「고려 공민왕대의 '誅奇轍功臣'에 대한 검토」,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론총』, 일조각, 1994;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2005; 이강한, 「공민왕 5년(1356) '반원개혁'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제6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참조.

그는 공민왕 이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공민왕 초기에 주목을 받은 것은 서북면 공격의 책임을 맡았다가 갑자기 희생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민왕 초기의 정국, 특히 공민왕의 개혁과 영토수복 업적을 살피는 데 있어 인당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시의 개혁 정책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왜 희생되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공민왕 집권 초기 무장으로서의 왜구 격퇴와 원의 남정군 참여 활동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민왕 5년의 개혁 및 영토 수복과 관련된 인당의 역할과 희생 원인에 대해 탐구보고자 한다. 이로써 본고는 인당 한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당시 고려의 입장과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일조를 하리라 기대한다.

2. 무장으로서의 활약

1) 왜구의 격퇴

印瑄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는 교동 인씨로서 조부는 印公秀이며 부는 印做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 인주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지만 인공수는 충렬왕 대 많은 활약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충렬왕 때 大將軍의 직위에 있으면서 別廳宰樞라 불리웠던 必闍赤에 임명되기도 한 인물이었다.[2] 때문에 齊國公主의 怯怜口로 고려에 온 홀라대[忽剌歹]가 인공수와의 친분을 이유로 그의 성을 취하여 성명을 印侯로 바꾸기까지 하였다.[3] 이처럼 인당은 무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활약상이 처음 보이는 것은 충혜왕 말년이다. 그는 충혜왕이 원에 잡

2) 이정호,「인공수의 활약과 업적」,『고구려 옛땅 회복의 꿈, 인당 장군』, 인당장군기념사업회, 2018, 15-24면 참조. 당시 必闍赤은 단순히 인사행정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군사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 기구였다. 김광철,『원 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 정치』, 경인문화사, 2018, 58면; 박용운,「고려후기의 必闍赤에 대한 검토」『이기백선생 고희기념한국사학론총』, 일조각, 1994.

3) 고명수,「충렬왕대 怯憐口(怯怜口) 출신 관원—몽골-고려 통혼관계의 한 단면—」,『사학연구』 제118호, 한국사학회, 2015.

혀갈 때 충혜왕 파였던 林信과 朴良衍, 林以道 등 9인을 원에 호송하는 역할을 하였다.[4] 이로 미루어 그는 적어도 충혜왕파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후 忠穆王이 즉위하자 密直司의 장관인 密直使에 임명되었다.[5] 그 후 王煦를 도와 整治都監을 통한 개혁에 동참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康允忠의 제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6] 忠定王 대에는 萬戶 직위에 있으면서 왜구 침입의 방어에 주력하였다. 忠穆王의 뒤를 이어 12세인 忠定王이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이때에도 인당은 주로 왜구의 격퇴에 공헌하였다.[7]

그러나 그의 본격적인 활약은 恭愍王 대에 이루어졌다. 공민왕은 22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즉위하였다. 공민왕 즉위 초에 인당은 그렇게 주목받은 인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민왕 즉위 직후 실시한 인사 조처에서 알 수 있다. 즉 공민왕이 즉위하자 贊成事 趙日新이 批目을 가지고 元으로부터 귀국하였다. 그 비목에 의거하여 李齊賢을 都僉議政丞으로, 李蒙哥를 判三司事로, 曹益淸과 全允臧을 贊成事로, 趙日新과 趙瑜를 參理로, 康得龍과 崔天澤을 三司右使와 三司左使로 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8] 이 인사조치 명단에 인당은 들어있지 않다. 요직에 임명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인사조치에 의하여 도첨의정승이 된 이제현은 반대파를 숙청하였다. 理問 裴佺 및 朴守明을 行省에 하옥시키고, 直城君 盧英瑞를 可德島로, 贊成事 尹時遇를 角山으로 유배를 보냈으며, 贊成事 鄭天起를 濟州牧使로, 知都僉議 韓大淳을 機張監務로 좌천시켰던 것이다.[9] 이 숙청된 명단에도 인당은 없다. 이처럼 인당은 공민왕 즉위년의 고위직 인사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충목왕 대에 종2품의 密直使, 충정왕 대에 萬戶 벼슬을 지냈지만 공민왕 대에는 주요 요직에 등용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하여 반대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좌천이나 숙청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대로 萬戶직을 유지하면서 국방의 업무에 충실하였다.

---

4) 『高麗史』 권36 세가 충혜왕 복위4년 12월 9일. "辛丑, 前代言印瑞以檻車, 載林信・朴良衍・林以道・南宮信・崔安義・金添壽・閔渙・王碩・承信等九人, 如元."
5) 『高麗史節要』 권25 충목왕 원년.
6) 『高麗史節要』 권25 충목왕 3년 7월.
7) 『高麗史』 권37 충정왕 3년 8월.
8) 『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즉위년 11월.
9) 『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즉위년 11월.

만호는 충렬왕 6년(1280) 2차 일본 정벌시 元이 金方慶을 都元帥에 임명하는 동시에 朴球・金周鼎 등을 만호에 임명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10] 그러나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에 대비하는 뜻에서 金州鎭邊萬戶府[후에 合浦萬戶府로 개칭] 등이 설치되었다가 그 후 금주만호부를 포함하여 巡軍萬戶府, 全羅萬戶府, 耽羅萬戶府, 西京萬戶府 등 5만호부로 정리되었다.[11] 여기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가 바로 만호였다. 그런데 순군만호부는 수도인 개경에 설치된 것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지방에 있던 관부였다. 중앙의 만호는 도적을 잡고 난을 금하는 일을 맡은 巡軍萬戶府에 속한 무관직이었다.[12]

그런데 만호직이 시작된 충렬왕대의 萬戶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고려 군사력을 통솔할 수 있는 최고 지휘관이었다. 인물 선정은 고려국왕이 할지라도 萬戶牌를 수여하는 것은 원의 황제였다. 그만큼 만호는 고려에서 실력이 있는 인물이었다.[13] 그 뒤 왜구가 창궐하면서는 각 道 元帥의 지휘하에 만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14] 이즈음 인당도 무장으로써 만호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인당은 공민왕 초에 만호라는 군대의 주요 지휘관으로서 왜구의 격퇴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던 것이다. 다음 기록을 보자.

A-①. 丁丑일에 萬戶 印瑬이 倭船을 나포하자 [왕이 그 배를] 東池에 띄우게 한 후 구경하였다.[15]

A-②. 丁卯일에 捕倭使 印瑬이 禁軍 및 東江, 西江, 喬桐의 뱃사공 1,000명을 지휘하여 왜구를 막으면서 미적거리며 진군하지 않았으므로 인당을 감옥에 가두었다.[16]

---

10) 『高麗史』 권29 충렬왕 6년 11월.
11)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2009, 514면 주해1.
12) 『高麗史』 권77 백관지2 諸司都監各色 巡軍萬戶府.
13) 변동명, 「고려 충렬왕대의 만호」, 『역사학보』 제121집, 역사학회, 1989
14)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172면 주481.
15) 『高麗史』 권38 공민왕 원년 7월. "丁丑, 萬戶印瑬獲倭船, 命泛東池, 觀之."
16) 『高麗史』 권38 공민왕 원년 8월. "丁卯, 捕倭使印瑬帥禁軍及東西江・喬桐水手一千人, 禦倭, 以逗遛不進, 下瑬獄."

왜구의 침입은 이미 고려 중기인 고종 때부터 있었다. 즉 1223년(고종 10) 5월에 '왜가 金州[김해]를 노략질하였다'[17]는 기사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후 간헐적으로 출몰하던 왜구는 忠定王 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략하였다.[18] 공민왕 대에 이르러서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공민왕 원년 7월 全羅道都巡問使가 왜구의 배 2척을 나포하였으며 위의 사료에서 보는 것처럼 萬戶 印瑬이 왜선을 나포하자 왕이 그 배를 동쪽 연못에 띄우게 한 후 구경하기도 하였다. 이어 合浦萬戶가 포로로 잡은 왜구를 바치기도 하였다.[19]

그러나 왜구의 세력은 만만치 않았다.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당은 金暉南의 뒤를 이어[20] 왜구를 잡는 총책임자인 捕倭使에 임명되었다. 이는 인당의 전투 능력과 경력을 공민왕이 인정해 준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印瑬도 禁軍 및 東江, 西江, 喬桐의 뱃사공 1,000명을 지휘하여 왜구를 막으면서 미적거리며 진군하지 못하였다. 그에 대한 형벌로 인당이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가 머뭇거리고 진군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의 구성 때문이었다. 정규군도 일부 있었지만 주로 뱃사공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아무리 용맹한 장수였다 하더라도 뱃사공을 거느리고 왜적을 막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21] 그러나 얼마 안 가 풀려난 것 같다. 全羅道萬戶 印瑬이 포로로 잡은 왜구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22] 이제 만호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지방인 전라도에 내려가 왜구 격퇴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

17) 『高麗史』 권22 고종세가 10년 5월.

18) 『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1350년(충정왕 2) 2월 "왜구가 固成·竹林·巨濟·合浦에 들어오자 千戶 崔禪·都領 梁琯 등이 싸워 이를 쳐부수고 삼백여 명을 죽였다. 왜구의 침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高麗史』 권37 충정왕세가 2년 2월.

19) 『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원년 7월 정해. 왜구와의 문제에 있어 합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합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마산 지역이 고려의 대왜구전의 최전방 기지로 인식되어 고려의 다수의 정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왜구의 본거지이며 집결지이자 통로이기도 한 쓰시마 섬의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다.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2007, 66-80면.

20) 김휘남은 이미 공민왕 원년 3월에 捕倭使에 임명된 바 있다. 『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원년 3월.

21) 문경호, 「고려말의 왜구와 인당」, 『고구려 옛땅 회복의 꿈, 인당 장군』, 인당장군기념사업회, 2018, 109면.

22) 『高麗史』 권38 공민왕 3년 6월 신해.

이처럼 인당은 공민왕 초에 萬戶의 벼슬에 있으면서 왜구의 격퇴에 참여하였다. 捕倭使라는 직책으로 왜구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2) 장사성 토벌군 참여

나아가 그는 공민왕 3년 원 나라 한족반란군인 張士誠의 토벌군에도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 남정군 파견 논의는 공민왕 원년부터 있었다. 즉 최유와 김원지 등이 남정군 10만을 고려에서 징발해야 한다고 원 황제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원에 있던 다른 고려 인물들이 반대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다.[23] 그러다가 공민왕 3년에 이르러 이러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즉 평강 채씨였던 蔡河中이 승상 脫脫의 요청이라 하고는 남정군의 징발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는 채하중이 탈탈에게 아부하여 고려의 재상이 되고자 함이었다. 그리하여 이수산과 함께 고려에 와서는 서로를 천거하며 높은 관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유탁과 염제신도 등용할 것을 요청하였다.[24]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공민왕은 결국 蔡河中을 僉議政丞으로, 李壽山과 康仲祥을 僉議評理로, 廉悌臣을 曲城府院君으로, 柳濯을 高興府院君으로 삼았다.[25] 그리고는 남정군을 징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록을 보자.

B-①. 계묘일에 元이 吏部郎中 哈剌那海, 崇文監少監 伯顔帖木兒, 利用監丞 林蒙古不花를 보내어 柳濯・廉悌臣・權謙・元顥・羅英傑・印瑞・金鏞・李權・康允忠・鄭世雲・黃裳・崔瑩・崔雲起・李芳實・安祐 등과 西京의 水軍 300명을 불러들이고 또한 날랜 군사를 모집하여 8월 10일까지 燕京에 집결시켜 張士誠을 토벌하라고 지시하였다. 伯顔帖木兒는 고려 사람인 康舜龍이다.[26]

B-②. 신해일에 印瑞을 碩城府院君으로, 李權을 五原府院君으로, 羅英傑을 錦城

23)『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원년 3월.
24)『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3년 6월.
25)『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3년 6월.
26)『高麗史』권38 공민왕 3년 6월. "癸卯, 元遣吏部郎中哈剌那海, 崇文監少監伯顔帖木兒, 利用監丞林蒙古不花, 召柳濯・廉悌臣・權謙・元顥・羅英傑・印瑞・金鏞・李權・康允忠・鄭世雲・黃裳・崔瑩・崔雲起・李芳實・安祐等, 及西京水軍三百, 且募驍勇, 期以八月十日, 集燕京, 討張士誠. 伯顔帖木兒, 本國人康舜龍."

君으로, 孫佛永을 敦城君으로, 金鏡을 義城君으로, 金鏞을 安城君으로, 安祐를 鼇城君으로, 崔源을 龍城君으로, 印安을 延城君으로, 崔安守를 咸城君으로, 具貞을 沔城君, 趙忠信을 祥原君으로 삼고, 그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에게도 모두 작위와 녹봉을 더해 주었다. 스스로 지원한 자들은 모두 3등을 뛰어서 관직을 주었다.27)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유탁, 염제신을 비롯하여 김용, 정세운, 최영 등이 남정군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중에는 인당도 끼여 있었다. 이들은 남정군에 참여하는 대가로 나름의 관직이 수여되었다. 즉 印璠을 碩城府院君으로, 李權을 五原府院君으로, 羅英傑을 錦城君으로, 孫佛永을 敦城君으로, 金鏡을 義城君으로, 金鏞을 安城君으로, 安祐를 鼇城君으로, 崔源을 龍城君으로, 印安을 延城君으로, 崔安守를 咸城君으로, 具貞을 沔城君, 趙忠信을 祥原君으로 삼고, 그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에게도 모두 작위와 녹봉을 더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당과 함께 印安이란 인물이 보이고 있다. 인안은 족보에 의하면 인당의 아들로 되어 있다.28) 그렇다면 이 출정군에 부자가 함께 참여한 셈이 된다. 아마도 인안이 아버지 인당을 따라 자원한 것이 아닌가 한다. 延城과 碩城은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延城은 황해도 延安을 뜻하는데 이 연안은 碩州라고도 불리웠다. 이는 연안의 연혁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연안은 원래 고구려의 冬音忽이었는데 통일 신라 때 海皐郡이 되었다가 고려초에 鹽州가 되었다. 고려 성종 때에는 防禦使가 설치되었으나 현종 때에 폐지되고 海州의 屬縣이 되었다. 후에 監務가 설치되었으나 고종 때에 거란병을 방어하는데 공이 있었으므로 永膺縣이 되었다. 후에 그 현의 사람 車松佑가 사직을 보위한 공으로 復州가 되었는데 원종 때에 李汾禧도 역시 사직을 보위한 공이 있어 碩州라 하였다. 충렬왕 때에 溫州牧으로 승격하였으나 충선왕이 牧을 없애고 延安府라 하였던 것이다.29) 즉 아들인 인안은 당시의 지명인 연안부의

27)『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3년 6월. "辛亥, 以印璠爲碩城府院君, 李權爲五原府院君, 羅英傑爲錦城君, 孫佛永爲敦城君, 金鏡爲義城君, 金鏞爲安城君, 安祐爲鼇城君, 崔源爲龍城君, 印安爲延城君, 崔安守爲咸城君, 具貞爲沔城君, 趙忠信爲祥原君. 其餘將卒, 並加爵秩, 自募軍, 皆超三級."

28)『喬同印氏大同世譜』, 回想社, 1984, 66면. 혹 이 둘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척 관계였음에는 틀림없다.

29)『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황해도 연안도호부 建置沿革.

첫 글자를 따서 연성군으로 하였고, 아버지 인당은 이전의 지명인 석주의 첫 글자를 따서 석성부원군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들에게 수여한 院君, 君 등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신하들에게 준 작위였다. 원래 고려 전기에는 왕의 친척인 宗室들이나 공이 있는 신하들인 異姓에게 公・侯・伯 등의 작위를 주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충렬왕 24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封君制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大君 및 院君은 정1품, 諸君은 종1품이 되었다.[30] 그러므로 인당은 석성부원군으로 정1품, 인안은 연성군으로 종1품의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田柴科의 토지와 祿俸을 받게 되었다.[31] 남정군 참여의 대가였던 것이다.

당시의 출정군은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全羅道萬戶였던 印瑄이 포로로 잡은 왜구를 바치자마자[32] 출정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명망있는 장수들과 거의 모든 정예병이 징발되었다. 이 때문에 공민왕은 자신의 숙위가 약해질 것을 염려하여 西海道에서 弓手를 모집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하였다.[33]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는 도중 남정군의 일부가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남정군이 압록강에 이르자 康允忠이 여러 사람들에게 모의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친척과 헤어지고 조상의 묘를 멀리하고 죽음의 땅으로 나아가니, 어느 날에 돌아올 것인가. 정예한 기병 50기를 데리고 돌아가서 서울에 들어가 군대를 내자는 모의를 시작한 자의 목을 베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염제신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나 염제신은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니다. 우리 임금은 하늘인데, 하늘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는가. 또 충신・의사에게 어찌 반역의 말이 있겠는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행렬을 따르게 되었다.[34] 이에 元에서는 中尙監丞 崔濡를 보내어 정벌에 나가는 군사를 감독하게

30)『高麗史』 권77 백관지2 宗室諸君 異姓諸君.
31) 이들 封君된 자들에게는 田柴科와 祿俸이 지급되었다. 食邑 지급 규정도 나와 있지만 이는 수여 형식만 따른 것으로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덕,『고려시대 봉작제 연구』, 청년사, 1998, 127-138면.
32)『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3년 6월.
33)『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3년 7월 계해.
34)『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3년 7월.

하였다. 최유는 일찍이 원으로 도망갔는데, 공민왕이 즉위하여 동쪽으로 돌아옴에 이르러서는 어가의 행차를 호종하여 遼陽에 이르렀다가 다시 도망쳐서 원으로 들어간 인물이었다.35)

그 후 남정군의 일원이 된 고려군은 많은 활약을 하였다. 그해 11월에 고려로 돌아온 印安의 보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脫脫이 군사를 거느리고 高郵城을 공격할 때에 유탁 등의 장수와 군사를 선봉으로 삼았는데 몽고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공격을 미루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장에서 흔히 있는 본국인과 이민족의 전공 다툼이었다. 이에 다음날 공격하였지만 기회를 놓쳐 함락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탈탈이 참소를 받아 유배갔으나 우리 군사는 큰 활약을 하여 육합성을 함락시켰는데 6명이 전사하였고 최영도 심하게 다쳤다는 것이었다.36) 이렇듯 남정군에 참여한 고려 군사들은 큰 활약을 하였던 것이다.37)

이후 원에서 돌아온 인당도 당시 원 내부의 정세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즉 원의 남방 출정에 참가하였던 萬戶 權謙, 元顯, 印瑞이 원나라에서 돌아와서, 남쪽 적군의 기세가 날로 성하여 간다는 것과 우리 군대가 六合城을 함락시켰고 또 淮安路로 이동하여 방어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였던 것이다.38) 이처럼 인당과 인안은 남정군에 참여한 후 본국에 돌아와 원이 내부의 권력쟁탈전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한족 반란군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인당은 아들인 인안과 함께 원의 남정군 출정에 참여하였다. 그 대가로 인당은 석성부원군에, 인안은 연성군에 책봉되어 전시과와 녹봉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물론 원을 돕는 행위였으나 원의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하여 돌아와서는 그 사정을 공민왕에게 자세히 보고함으로써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

35)『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3년 7월.
36)『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3년 11월. 민현구도 이러한 脫脫의 실각과 高郵 공략의 실패로 인한 몽골의 세력 약화가 공민왕의 반원개혁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민현구, 앞의 글, 1989, 65-66면.
37) 고려 남정군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허인욱,「공민왕 3년의 장사성 토벌과 인당」,『고구려 옛땅 회복의 꿈, 인당장군』, 인당장군 기념사업회, 2018, 197-212면 참조.
38)『高麗史』권38 공민왕세가 4년 5월

3. 공민왕 5년의 반원정책과 인당

1) 반원 개혁과 영토수복

원의 남정군을 통해 원 나라 내부 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공민왕은 동왕 5년 친원 세력인 奇轍을 비롯한 奇氏 일당을 제거하였다. 즉 공민왕은 동왕 5년 6월 奇轍을 비롯하여 權謙・盧頊 등을 반역의 혐의로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親黨은 도주하였는데 이들이 도주하는데 협조한 元顥・韓可貴와 具榮儉 등은 처형한 후에 가산을 적몰하였다. 나아가 征東行中書省 理問所도 폐지하였다.[39]

기철은 기황후의 일족이었고 노책은 충목왕이나 충정왕 때에 정승을 지낸 인물로 원 황제에게 딸을 바친 친원파였다.[40] 한가귀는 燕邸隨從功臣 1등에 책봉된 인물이었다.[41]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겸이나 원호 등은 원의 남정군으로 참전했던 장수들이었고 구영검도 유탁과 함께 高郵城 공격에 참여한 인물이었다.[42] 기철, 노책 등의 친원파와 함께 남정군 장수 중의 일부가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권겸, 원호는 남정군에 참여한 후 돌아와 인당과 함께 자세한 전황을 공민왕에게 보고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제거된 것은 권력을 너무 탐했기 때문이었다. 권겸은 일찍이 合浦萬戶를 지냈기 때문에 충숙왕이 복위하자 여러 차례 萬戶 관직을 구하였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권겸은 원에 가서 권세가에 의탁하여 결국 巡軍萬戶가 되었다. 공민왕 초에는 원에 가서 황태자에게 딸을 들인 대가로 太府監太監에 임명될 수 있었다.[43] 원 황실의 인척으로 권력을 마음대로 하였던 것이다. 원호 또한 그러하였다. 그는 일찍이 권력을 잡고 싶어서 洪彦博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참소하였고, 또 한가귀와 구영검 등이 기철의 무리를 추

39) 『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5년 5월 정유. 한편 이 사건은 원 내부에서 脫脫의 실각과 함께 그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기황후와 황태자의 세력 강화로 인한 공민왕의 입지 약화가 배경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262-272면.
40) 『高麗史』 권37 충목왕세가 원년 3월; 충정왕세가 원년 8월; 권38 공민왕세가 3년 5월.
41) 『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원년 10월 임인.
42) 『高麗史』 권114 具榮儉傳.
43) 『高麗史』 권131 權謙傳.

포하지 않았다고 참소하였다. 그러나 왕은 한가귀・구영검과 함께 원호를 하옥시켰다가 李蒙古大로 하여금 옥중에서 그를 망치로 때려죽이게 하였다.[44] 그러나 인당은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영토수복 작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공민왕은 기철 일당을 제거하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 원에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공민왕의 영토 수복 정책은 서북면과 동북면의 두 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즉 印瑞 등에게 명하여 압록강 서쪽을, 柳仁雨 등에게 명하여 쌍성총관부 지역을 수복하게 하였다. 기록을 보자.

> C. 評理 印瑞, 同知密直司事 姜仲卿을 西北面兵馬使로, 司尹 辛珣・兪洪, 前 大護軍 崔瑩, 前 副正 崔夫介를 副使로 임명하여 압록강 서쪽의 8站을 공격하게 하였다. 또 密直副使 柳仁雨를 東北面兵馬使로, 前 大護軍 貢天甫, 前 宗簿令 金元鳳을 副使로 임명하여 雙城 등 지역을 수복하게 하였다. 인당이 먼저 출발하였는데 강중경이 술에 취하였다가 뒤늦게 와서 객기를 부렸다. 인당이 제지했으나 듣지 않자 신순에게 눈짓하여 그의 목을 베어 버린 후에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강중경이 逆心을 품었으므로 군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物議가 분분하였다.[45]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공민왕은 두 방면으로 영토 수복을 명하였다. 우선 서북면 방향을 보자. 제일 먼저 공민왕은 인당과 강중경을 서북면병마사로 삼고 신순, 유홍, 최영, 최부개를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 8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당시에는 그 유명한 최영도 인당 휘하에 있었던 것이다. 최영은 柳濯과 함께 원나라 丞相 脫脫 등을 따라 高郵[중국 강소성 소재 지명]를 토벌할 때 전공을 세운 바 있다. 최영은 이렇게 원에서 활약하다 귀국한 후 印當과 함께 서북면의 작전에 참여하였던 것이다.[46]

---

44) 『高麗史』 권107 元顯傳.

45) 『高麗史』 권39 공민왕세가 5년 5월;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5월. "以評理印瑞, 同知密直司事姜仲卿爲西北面兵馬使, 司尹辛珣・兪洪, 前大護軍崔瑩, 前副正崔夫介爲副使, 攻鴨江以西八站. 以密直副使柳仁雨爲東北面兵馬使, 前大護軍貢天甫, 前宗簿令金元鳳爲副使, 收復雙城等地. 瑞先發, 仲卿被酒, 後至使氣. 瑞止之不聽, 瑞目辛珣, 斬之, 報王曰, '仲卿有二心, 處以軍法.' 國家莫知其故, 物議紛紜."

여기서 인당 등이 공격한 8참은 '鴨綠江以西'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압록강 건너편'이라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다음 기록에서 알 수 있다.

> D. 갑오 13년[994] 봄 2월에 蕭遜寧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근자에 나는 우리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고려는 우리와 일찍부터 우호 관계를 맺어 왔고 국경이 서로 인접해 있으니 비록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고 하지마는 당연히 일정한 규례가 있고 사신이 왕래하여야 시종 일관하게 좋은 관계가 장구히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미리 해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혹 중로에 사신길이 막힐 수 있다. 너는 고려와 상의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통로 요충이 되는 곳에 성을 쌓도록 권고하라'고 하였다. 나는 이 명령을 받고 이곳 실정을 참작하여 압록강 서쪽에 5개의 성을 쌓기 위하여 3월 초에 축성할 곳들에 가서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컨대 대왕[고려 왕]도 미리 지시를 하여 안북부에서 압록강 이동에 이르는 1백 80리 구간에 적당한 지점을 답사하고 거리의 원근을 참작하여 우리와 함께 축성하되 역군들을 동원하여 동시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며 그 축성할 지점의 수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통고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목적은 당신네 나라의 車馬 교통이 편리하도록 조공의 길을 열고 영구히 거란의 조정을 받들어 자국의 평안한 길을 찾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47]

이는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 직후의 상황을 기록한 글이다. 거란이 물러간 후 소손녕은 우리에게 글을 보냈는데 사신의 왕래를 위해 자신들은 압록강 서쪽에 5성을 축성할 것이니 고려도 역부들을 동원하여 압록강 동쪽에 성을 쌓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축성의 목적은 조공을 위한 車馬 교통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압록강 건너의 서쪽은 遼 나라 땅이라 인식하였고 압록강 동

---

46) 『高麗史』 권113 崔瑩傳.

47) 『高麗史』 권3 성종세가 13년. "十三年, 春二月, 蕭遜寧致書曰, 近奉宣命, 但以彼國信好早通, 境土相接, 雖以小事大, 固有規儀, 而原始要終, 須存悠久, 若不設於預備, 慮中阻於使人. 遂與彼國相議, 便於要衝路陌, 創築城池者, 尋准宣命, 自便斟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 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大王預先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里遠近, 幷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與回報, 所貴交通車馬, 長開貢覲之途, 永奉朝廷, 自恊安康之計."

쪽은 고려 땅이라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얻은 우리의 영토를 '江東六州'라 한 것도 이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처음부터 공민왕이 인당에게 명하여 원의 영토에 넘어들어 가도록 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인당은 評理 관직에 있다가 서북면병마사가 되었다. 이 평리는 공민왕 5년 기철 일당을 제거한 직후 받은 것이었다.[48] 평리는 僉議府의 종2품 관직으로 고려 전기의 參知政事에서 개명된 것이었다.[49] 재상급에 속한 관직이었다. 그런 그가 서북면병마사가 되어 그 휘하에 최영을 비롯한 4명의 부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최영의 당시 관직은 前 大護軍이었다. 대호군은 고려 전기의 대장군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종3품의 관직이었다.[50]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서북면병마사에 임명된 강중경이 술이 취해 늦게 온 것도 모자라 객기 즉 술주정을 한 것이었다. 인당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자 그를 목베어버린 것이었다. 도대체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민왕의 잘못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공민왕의 원래 의도는 그 임무가 중대한 것이어서 병마사를 두 사람으로 하여 서로를 감시 또는 견제하게 한 것이었다. 출동한 곳이 원의 영토였기 때문에 혹 병력을 데리고 원에 붙을 것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인당은 이미 원 나라 군대와의 합동작전 경험이 있어 원 나라의 무인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민왕도 이미 동녕부나 쌍성총관부의 예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상하가 아닌 동급으로 두 사람을 임명했을 때에는 반드시 내부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 같다. 강중경은 同知密直司事에 있었는데 동지밀직사사는 왕명 출납과 宿衛, 軍機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인 密直司의 종2품 관직이었다.[51] 인당과 강중경은 근무하는 관청은 달랐으나 관직의 품계는 똑같이 종2품이었다. 같은 품계에

48)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5월.
49) 『高麗史』 권76 백관지1 門下府 評理조.
50) 『高麗史』 권77 백관지2 西班.
51) 『高麗史』 권76 백관지1 密直司.

있는 두 사람을 같은 관직에 임명한 것은 공민왕의 실수였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강중경이 한 객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강중경은 원래 공민왕을 원에 있을 때부터 모신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공민왕 즉위 직후 燕邸隨從功臣 2등에 오른 인물이었다.[52] 공민왕 2년에는 상호군으로 金成寶와 함께 원 나라에 사신으로 가 곰의 가죽과 염소 가죽을 바치기도 하였다.[53] 그 후 공민왕 3년에는 밀직부사의 관직에 올랐다.[54] 그러한 인연으로 공민왕 5년 기철 일당을 제거할 때 큰 역할을 했다. 즉 大護軍 睦仁吉, 万達赤 李蒙古大 등과 함께 壯士를 매복시켰다가 기철과 권겸을 망치로 쳐서 죽인 인물이었다.[55] 그런데도 그 직후의 인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한 반면 인당은 큰 역할을 하지도 못했는데 첨의평리에 임명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같이 서북면병마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인당에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인당은 목숨을 걸고 원의 남정군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불만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에 강중경을 목벤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유인우는 동북면병마사가 되어 부사인 공천보와 김원봉을 거느리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 당시 유인우의 관직은 밀직부사였다. 밀직부사 역시 밀직사의 관원으로 종2품이었다.[56] 쌍성총관부는 고종 45년(1258)에 몽고에 의해 설치된 관청이었다. 즉 龍津縣 사람 趙暉와 定州 사람 卓靑 등이 朔方道 登州·文州의 여러 성 사람들과 공모하고 몽고군을 인도하여 兵馬使 愼執平, 登州副使 朴仁起, 和州副使 金宣甫 및 京別抄 등을 죽이고 화주 이북을 바치면서 몽고에 귀부하였다. 몽고가 이에 雙城摠管府를 화주에 두어, 조휘를 摠管으로 삼고 탁청을 千戶로 삼았던 것이다.[57] 조휘, 탁청 등이 반란을 꾀한 이유는 몽고군이 이 지역에 쳐들어오자 병마사 신집평이 고려의 군민을 죽도로 강제로 옮기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죽도는 너무 좁고 우물이 없었기 때문

52)『高麗史』권38 공민왕세가 원년 6월.
53)『高麗史』권38 공민왕세가 2년 정월.
54)『高麗史』권38 공민왕세가 3년 6월.
55)『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5년 5월.
56)『高麗史』권76 백관지1 密直司.
57)『高麗史節要』권17 고종 45년 12월.

에 사람들이 가고자 아니 하였으나 이를 강제로 실행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58] 이렇게 하여 몽고에 넘어간 쌍성총관부 지역은 거의 100여 년 동안 몽고의 영토가 되었다가 공민왕 5년에 와서 수복된 것이었다. 쌍성총관부에서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씨 세력 중 일부가 친고려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즉 雙城 사람 趙都赤이 와서 공민왕을 알현 하자 왕은 금패를 하사하고 高麗雙城地面管軍千戶를 제수하였던 것이다.[59]

조도적이 고려에 협조하게 된 내력은 이러했다. 유인우가 출동하자 쌍성총관이었던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은 이에 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趙暾은 이에 응하지 않고 조도적을 불러 고려를 배반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옳게 여긴 조도적은 유인우에게 협조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趙仁璧을 쌍성총관부에 보내 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관군을 맞이한 것이다. 조씨 세력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또 공민왕은 이미 친고려 쪽으로 기울었던 李子春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내응할 것을 타일렀다. 그러자 이자춘은 명을 받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유인우 군대와 합세하였다. 전세가 불리한 것을 안 조소생과 탁도경은 북쪽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쌍성총관부가 고려의 영토가 되었고 조도적이 공민왕에게 오게 된 것이었다.[60]

영토 수복 명령을 내린 직후 공민왕은 기철 세력 제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교서를 반포하고 잔당을 토벌하였다.[61] 이로써 영토 수복과 함께 기씨 일당에 가담한 친원 세력이 깨끗이 제거되었다.[62]

이러한 정국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임중보와 석기의 반역 사건이었다. 즉 공민왕은 前 護軍 林仲甫가 釋器를 받들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자 한

58)『高麗史節要』권17 고종 45년 10월.
59)『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5년 6월.
60)『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5년 7월.
61)『高麗史節要』권26 5년 5월.
62) 그러나 기유걸의 동생인 奇世傑과 기사인테무르[奇賽因帖木兒]는 당시 원에 있어 죽음을 면했다. 『高麗史』卷131 列傳 44 奇轍傳. 그런데 이 기사인테무르는 기황후의 조카이자 공민왕에게 주살당한 기철의 아들로서 요동 지역이 군웅할거 상태로 있었던 혼란기에 요양성을 거점으로 하여 새로이 동녕부라 이름하는 세력을 구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오기승, 「高麗末 東寧府의 形態 變遷과 高麗 流移民」, 『역사민속학』 제46호, 역사민속학회, 2014, 104-109면 참조.

다는 것을 듣고, 곧 巡軍에 하옥하여 죄를 조사하고 다스렸다. 여기에 관련된 前 政丞 孫守卿, 前 密直 洪峻, 監察大夫 孫湧・黃淑卿, 典校令 鄭世功, 前 判事 金成・洪桂 등 10여 명은 모두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손용은 혐의를 벗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공민왕은 손수경・홍계・임중보・김성의 목을 베고, 석기를 밖으로 추방하였으며, 찬성사 康允忠을 좌천하여 東萊縣令으로 삼고, 漢陽尹 洪仲元과 鄭世功・薛起宗・姜贊・張萬・林朱雲 등에게 장형을 가하였다.[63] 석기는 永陵 즉 충혜왕의 서자로[64] 공민왕의 조카였다. 충정왕이 그의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게 하여 萬德寺에 두었는데 공민왕 때에 속세에 나왔다가 반란 사건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다.[65] 아마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원과 내통하여 공민왕을 제거하고 석기를 받들고자 역모를 꾀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곧이어 공민왕은 교서를 내려 기철과 손수경의 무리에 대해 사면령을 반포하고 至正 年號의 사용을 정지하였다. 여기서 그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법령을 밝게 닦고, 기강을 정돈하여 온 나라가 함께 다시 시작할 것[一國更始]을 기약한다."라고 하였다.[66]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일국갱시(一國更始)'의 뜻을 천명하였던 것이다.[67] 그리고는 원 나라의 연호인 지정 연호를 정지하였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원 나라를 따르지 않고 간섭도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원나라는 고려의 節日使 金龜年을 遼陽省에 가두고 80만 병력을 동원하여 와서 토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자 서북면병마사로 8참 공격에 나섰던 印瑬은 응원군을 더 청하여 이에 대비하였다.[68] 원의 군사가 고려에 출동할 경우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이를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

63) 『高麗史』 권39 공민왕 5년 6월;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6월.
64) 『高麗史』 권38 공민왕세가 즉위년 12월.
65) 『高麗史』 권91 종실2 釋器조.
66) 『高麗史』 권39 공민왕 5년 6월; 『高麗史節要』 권26 5년 6월.
67) '一國更始'에 대해서는 홍영의, 앞의 책, 2005, 88-99면; 이형우, 「개혁군주 공민왕」, 『고려의 국왕』, 경인문화사, 2015, 404-413면 참조.
68) 『高麗史』 권39 공민왕세가 5년 6월 을해.

먼저 그 개혁의 단초로 공민왕은 관제를 문종대의 것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洪彦博을 門下侍中으로, 尹桓을 守門下侍中으로, 柳濯을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로, 許伯을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로, 黃石奇를 門下平章事로, 金鏞을 中書平章事로, 金逸逢·印瑞을 參知政事로, 全普門과 鄭珦을 守司空左僕射와 守司空右僕射로, 慶千興을 判樞密院事로, 崔仁遠을 樞密院使로, 安祐를 知樞密院事로, 裵天慶·黃裳을 同知樞密院事로, 柳仁雨·李春富를 樞密院副使로, 金希祖를 簽書樞密院事로, 柳淑을 樞密院學士로 삼았다.[69] 이 인사조치로 인당은 참지정사가 되었다. 첨의평리의 옛 관직이 바로 중서문하성의 참지정사였기 때문이었다.[70]

이처럼 인당은 압록강 너머 원 나라 영토인 8站에 대한 공격명령을 받고 출동하였다. 그러나 늦게 온 강중경과의 불화로 그를 제거하였다. 강중경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당은 곧바로 죄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후의 관직 개편 시에 승진은 하지 못하고 이전과 동급인 參知政事에 임명되었다. 그것은 그가 공민왕 5년의 개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공민왕의 심복인 강중경을 처단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2) 3참의 점령과 죽음

한편 강중경을 죽이고 서북면으로 출동한 인당은 압록강을 건너 원의 영토로 들어갔다. 그리고 원의 3站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을 보자.

> E-①. 6월 계축일에 印瑞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婆婆府 등 3站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71]

> E-②. 6월에 印瑞이 군사를 이끌고 鴨綠江에 이르러 婆娑府 등 3站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72]

---

69)『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5년 7월.
70)『高麗史』권76 백관지1 門下府 評理조.
71)『高麗史』권39 공민왕세가 5년 6월. "六月, 癸丑, 印瑞引兵渡鴨綠江, 攻婆娑府等三站破之."
72)『高麗史節要』권26 공민왕 5년 6월. "六月, 印瑞引兵到鴨綠江, 攻破婆娑府等三站."

여기서 站이란 고려시대부터 驛路에 마련되어 公文을 중계하고 공용 여행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던 시설을 말한다.[73] 원래 원나라의 傳命機關인 站赤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참적은 '驛傳'을 몽고말로 번역한 것으로 대개 변방의 사정을 통하여 이르게 하고 황제의 호령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육지에 설치한 것과 바다에 설치한 것이 있었다. 육지의 참에서는 소나 말, 노새, 수래 등을 교통수단으로 하였지만 바다에서는 배로 운송수단을 삼았다.[74] 즉 참은 주요 교통로에 설치한 교통편의 시설이었다.

그런데 위의 두 기록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문을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①의 『고려사』에서는 파사부등 3참이 압록강 건너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널 도(渡)'자를 써서 '압록강을 건너[渡鴨綠江]'라 표현하고 있다. 『고려사』는 원래의 상황을 반영한 사료를 충실하게 따른 것 같다. 그러나 E-②의 『고려사절요』에서는 '이를 到'자를 써서 '압록강에 이르러[到鴨綠江]'이라 되어 있다. 마치 압록강을 건너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보다도 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쓴 사서이기 때문에[75] 고려가 중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한다.

압록강 건너의 파사부는 고려와 원나라의 주요 교통로 상에 있었다. 그리하여 기록에도 몇 번 언급되고 있다.

F-①. 정묘일에 세자가 연경으로부터 돌아와서 婆娑府에 이르렀다. 靜州의 官奴 丁伍孚가 가만히 강을 건너가서 임연이 왕을 폐하고 새 왕을 세운 사실을 일러바쳤다. 세자가 이 말을 듣고 의심하고 우려하니 정오부가 건의하기를 "告奏使 곽여필이 靈州에 있으니 사람을 시켜 그를 만나게 해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73) 『高麗史』권82 병지2 站驛조에 의하면 당시 고려에는 525개 역이 있었는데 이를 22개의 驛道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도인 개성과 양계 방면을 잇는 驛路상에 위치한 149개 역을 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눈 6科 체제로 분류하였다. 이기백・김용선, 앞의 책, 218면 주178.

74) 『元史』 권101 병지4 站赤조.

75) 그것은 中夏를 높이기 위해 上國 사신의 왕래는 반드시 기록한다는 『고려사절요』의 범례 및 태조나 광종의 독자적인 年號 建立 기사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이정란,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修史方式 비교—睿宗代 '王言'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52호, 고려사학회, 2013, 23면.

래서 세자가 함께 왔던 몽고 사신 7명을 보내 영주에서 곽여필을 붙잡고 또 防護 譯語 鄭庇도 잡아다가 물어 본 후에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자 세자는 통곡하고 몽고로 도로 들어갔다.76)

F-②. 5월 경신일에 왕의 綸音이 있었는데 "(…) 기사년에 내가 원나라에서 귀국하던 도중 婆娑府까지 이르렀다가 국내에 사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원나라 서울로 돌아갈 때에 나를 따라 가서 도와 주던 將軍 丁伍孚·鄭仁卿·車得珪·李之氐, 大府尹 金應文, 郎將 金義光을 1등 공신으로 임명하고, 大將軍 羅裕·池允輔, 將軍 林庇, 摠郎 李承衍, 將軍 金富允, 中郎將 黃就, 郎將 聶周碩·梁貯, 正郎 白佐明, 郎將 田祐·金位良을 2등 공신으로 임명하고 각각 田民을 주며 기타 從臣들은 갑술년의 명령에 따라 그 자손들을 관직에 등용할 것이며, 別將 金心伯·劉福和, 殿前承旨 崔仲卿은 비록 법식에 의하여 모두 7품 관직까지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나 나를 따라 간 공이 있으므로 5품 관직까지 임명하여 줄 것을 허용한다. 중랑장 정승오는 두 번이나 나를 따라서 원나라에 갔었으니 그 아들을 5품 관직까지 한하여 등용할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77)

F-③. 2월 임술일에 지밀직사사 林仲沇이 황후를 책봉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원나라로 가는 도중에 婆娑府 達魯花赤이 역마를 주지 않아서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왔다.78)

F-①은 원종 10년에 당시의 집권자였던 임연이 왕을 폐하였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세자였던 충렬왕은 원의 수도 연경에서 고려로 돌아오다 파사부에 이르렀을 때 그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靜州의 官奴 정오부였다. 그는 정주에서 압록강을 건너가 왕을 알현하고 소식

76)『高麗史』 권26 원종세가 10년 7월. "丁卯 世子自燕京, 還至婆娑府. 靜州官奴丁伍孚, 潛渡江, 告林衍廢立. 世子聞之疑慮, 伍孚曰, '告奏使郭汝弼在靈州, 請使人見之.' 世子使同來蒙古使者七人, 執汝弼于靈州, 又執防護譯語鄭庇, 問知其實, 痛哭還入蒙古."

77)『高麗史』 권29 충렬왕세가 8년 5월. "五月, 庚申, 敎曰, '(…) 己巳年東歸, 至婆娑府, 聞變還朝, 侍從輔佐, 將軍丁伍孚·鄭仁卿·車得珪·李之氐, 大府尹金應文, 郎將金義光 爲一等功臣, 大將軍羅裕·池允輔, 將軍林庇, 摠郎李承衍, 將軍金富允, 中郎將黃就, 郎將聶周碩·梁貯, 正郎白佐明, 郎將田祐·金位良爲二等功臣, 各賜田民. 其餘從臣, 依甲戌年宣旨, 子孫錄用. 別將金心伯·劉福和, 殿前承旨崔仲卿, 雖皆常式七品, 隨從有功, 許通五品. 中郎將鄭承五, 再從入朝, 許其子限五品.'"

78)『高麗史』 권35 충숙왕세가 9년 2월. "二月, 壬戌, 知密直司事林仲沇如元, 賀冊后, 行至婆娑府, 達魯花赤不給驛馬, 不得入而還."

을 전해주었다. 세자가 의심하자 같이 왔던 몽고 사신을 靈州에 있는 곽여필에게 보내 문의해 본 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다시 몽고로 돌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정주와 영주는 고려 땅이었지만 파사부는 원의 영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주는 고려의 역로 중 하나로 興化道에 속해 있었는데 일명 鴨綠으로도 불리웠다.[79] 영주도 고려 개경에서 元의 大都로 갈 때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들러야 하는 교통상의 요지였다.[80]

충렬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파사부에서 겪었던 임연의 고종 폐위 사건 당시 자신을 도와 준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였다. F-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군 정오부, 정인경, 차득규, 이지저, 대부윤 김응문, 낭장 김의광을 1등 공신으로 임명하고, 대장군 나유, 지윤보, 장군 임비, 총랑 이승연, 장군 김부윤, 중랑장 황취, 섭랑장 주석과 양저, 정랑 백좌명, 낭장 전우와 김위량을 2등 공신으로 임명하였다. 관노였던 정오부가 충렬왕을 도와준 대가로 장군의 직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충렬왕 23년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도 이 일을 언급하고 있어[81] 이 사건이 충렬왕 개인에게도 매우 충격을 준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한편 F-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숙왕 9년에는 임중윤이 원 나라에 사신으로 갔으나 파사부의 다루가치[達魯花赤]가 역마를 내주지 않아 다시 고려로 돌아왔음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파사부는 압록강 건너 원의 영토에 자리하고 있었다.[82] 파사부 이외의 다른 2참의 이름은 잘 알 수 없다. 그중 하나는 咸

79)『高麗史』 권82 병지2 驛站조.

80) 연구에 의하면 당시 개경에서 원의 大都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즉 開京 (…) 洞仙—生陽(60)—東寧(65)—安定(85)—肅州(90)—都護(90)—安信(120)—雲興(90)—宣州(95)—靈州(60)—誼州(義州, 압록강 도강, 3012)—驛昌站(40)—陽站(湯站의 오류, 60)—開州(70)—斜烈(70)—龍鳳(70)—連山(서 65)—甜水(서 65)—頭館(북서 60)—東京(遼陽, 북 120)—瀋州(서 60)—彰義(서 120)—崖頭(북 100)—驛昌(북 110)—懿州熊山(북 120)—驛安(서북 120)—柳樹部落(서북 120)—鹿窖(서북 70)—橋子站(서 75)—西部落(서110)—叉道(서 100)—北京(大寧, 120)—富峪(서남 100)—神山(서남 100)—寬河(서남 120)—富民(서남 60)—灤陽(서남 90)—遵化(서 120)—薊州(서100)—夏店(서 60)—通州(서 40)—大都에 이르는 길이었다. 정동훈, 「고려 사신의 몽골 잠치(站赤) 이용」, 『사학연구』 제134호, 한국사학회, 2019, 75면. 압록강을 건너기 전 영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1)『高麗史』 권32 충렬왕세가 23년 9월.

82) 정동훈도 이 자료를 근거로 파사부는 압록강 건너에 있다고 보았다. 즉 고려 사신이 원에 갈 때 일반적으로는 압록강을 건넌 다음부터는 파사부 등 몽골제국의 잠치(站赤)를 이용해서 대도까지

平府가 아닌가 한다. 이들 부는 이미 원 世祖 때부터 있었는데 世祖 至元 7년(1270) 여원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 때 군량을 비축하고자 하여 왕순, 홍다구 등이 관리하고 있는 고려민호 2천과 中衛軍 2천, 파사부와 함평부의 군사 각 1천을 합하여 개경과 東寧府, 鳳州 등 11곳에 둔전을 설치하고 經略司를 두어 이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는 기록에서[83]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파사부를 비롯한 3참은 원의 영토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아마도 인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록강 건너 원의 8참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받고 그중 파사부 등 3참을 먼저 점령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기서의 3참은 앞의 8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 무렵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때 마침 元의 사신 直省舍人이 奇轍의 太司徒 임명장과 인장을 가지고 고려로 오다 西北面兵馬副使 辛珣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신순은 임명장과 인장을 빼앗고 舍人을 가두었으며 시종 3명을 죽였는데, 사인이 밤에 도망쳐 버렸다.[84] 이 원의 사신이 본국에 돌아가 자신이 당한 정황과 고려의 원나라 영토 점령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공민왕이 인당으로 하여금 원의 영토에 들어가 8참을 공격하도록 하고 3참을 점령한 것은 원의 침략에 대비하는 한편 원을 오가는 교통로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85] 그것은 파사부를 비롯한 참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고려 내부에서 진행된 반원개혁과 영토수복작전의 사정을 원이 알지 못하도록 한 조처가 아닌가 한다. 위에서 보듯이 충렬왕이 파사부까지 왔다가 임연의 원종 폐위 소식을 듣고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든가 충숙왕 때 임중윤이 원에 가려고 파사부에 이르렀으나 역마를 내주지 않아 돌아왔다는 사정이 그것을 말해준다. 또 서북면 병마부사 신순이 원의 사신을 가두었다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기철 일당을 제거한 직후 "서북면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훈, 앞의 글, 101면.

83) 『元史』 권100 병지3 屯田 高麗國立屯조.

84)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6월.

85) 신안식도 고려의 8참 공격과 3참 점령은 고려와 원나라의 연결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앞서 동녕부가 일찍이 고려로 환수됨으로써 압록강 너머까지 군사적인 행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신안식, 「고려후기의 영토분쟁—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군사』 제9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105면.

에 장수를 보내 원에 대비하고 봄, 가을로 공물을 바치며 견제할 뿐이어서 소식이 거의 막혀 있었다"[86]는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 준다. 물론 서북면에 보낸 장수는 바로 인당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의 사신이 도망하여 원에 돌아감으로써 기철 일당의 제거와 쌍성총관부 공격, 3참의 점령 등 고려의 내부 사정이 원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에 원에서는 사신을 보내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 것에 대해 힐책하는 조서를 전달하였다. 다음 기록을 보자.

> G. 元에서 中書省斷事官 살적한[撒迪罕, 사데이칸]을 보내어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고려는 우리 世祖께서 천하를 통일한 처음에 天命을 밝게 알고 온 나라가 신하로서 복속하였으니, 이에 혼인을 맺은 것이 지금까지 100년이 되었다. 근래에 간악한 民이 갑자기 변방의 틈을 만들어서 우리의 국경을 넘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우리 驛舍를 불태워서 우리 행인을 막고 있다. 이를 법에 비추어 헤아려 볼 때 토벌하고 주륙하는 데에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 [그러나] 오히려 그대의 하찮은 적의 무리들이 혹 그대의 나라에 죄를 얻고 도망하다가 무리를 모았거나, 혹은 다른 나라를 따르면서 그대의 民이라고 거짓으로 칭하고 무기를 도용하여 대대로 이어오던 우호관계를 이간질한 것인가 염려된다. 만약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대병이 한 번 일어나 임하게 된다면, 옥석이 함께 불탈 것이니 실로 참을 수 없는 바이다. 그대는 의심이나 두 마음을 갖지 말고 그대의 군사를 내어서 곧 체포하거나, 혹은 우리의 군사와 약속하여 힘을 합하여 함께 공격하여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을 편안하게 하고 영원히 이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기약하라. 모두 갖추어서 아뢰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87]

이처럼 사신을 보내 고려가 원에 복속하여 혼인을 맺은 것이 100여 년이나 되었는데 근래에 어떤 무리가 국경을 침범하여 驛舍의 건물을 불태운 것을 힐책하였다. 이는 마땅히 바로 토벌하여 주륙해야 하는 것이나 혹 이는 하찮은

86) 『高麗史』권131 奇轍傳.

87)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7월. "元遣中書省斷事官撒迪罕, 詔曰, '高麗自我世祖混一之初炤知天命, 擧國臣服, 爰結婚親, 于今百年. 邇者, 姦民邊生邊釁, 越我封疆, 擾我黎庶, 焚我傳舍, 阻我行人. 揆諸天憲, 討戮何疑. 尙慮蕞爾賊徒或得罪爾邦, 逋逃嘯聚, 或從他國, 妄稱汝民, 盜用兵戈以間世好. 若不詢問情僞, 大兵一臨, 玉石俱焚, 誠所不忍. 爾其毋生疑貳, 發爾士卒, 就便招捕, 或約我天兵, 併力夾攻, 期於靖國安民, 永敦前好. 具悉奏聞.'"

도적의 무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려인으로 변장하여 한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규모 정벌은 미룰 것이니 이들을 체포하여 우호관계를 회복하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대병을 이끌고 정복할 것이라 하였다.

공민왕은 이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원의 대규모 출병이 사실일까 아닐까를 저울질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의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원에 사과하였다. 다음 기록을 보자.

H. 西北面兵馬使 印瑠의 목을 베고, 撒迪罕 편에 표문을 보내어 아뢰기를, "삼가 생각건대, 저희 나라는 멀리 동쪽 끝에 위치하여 隋·唐의 융성함으로도 羈縻하였을 뿐입니다. 世祖께서 용처럼 일어나심에 天命을 분명히 알고, 앞서서 歸附하고 대대로 작은 공로를 드러내었으므로, 동쪽으로 차츰차츰 옮겨주신 은택이 날로 새롭고 달로 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게도 賊臣 奇轍이 盧頊·權謙과 더불어 반역을 모의하여, 우리의 화가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살피건대, 기철 등은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고는 大朝의 위엄을 빌어서 기세가 하늘에 솟았으며, 국왕을 위협하여 제압하였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인민을 빼앗지 않으면 그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도 天朝를 두려워하여 한 번도 감히 따지지 않았는데, 많은 일반 백성들의 원망은 어찌 밝은 데에 나왔겠습니까. 기철 등은 죄가 가득하고 악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또 망령되게도 천하가 소란하고 어지러워 전쟁이 바야흐로 많이 일어나니, 하루아침에 세력이 없어지면 몸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편안하기를 모의하고 그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데에 힘써서 안팎의 관사에 모두 親黨을 배치하였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요직에 [그의] 심복이 아닌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기를 마음대로 만들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숙하게 익히는 것을 공공연히 하여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뜬소문을 선동하여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고 어지럽혔으며, 올해 5월 18일에는 무뢰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일시에 모두 일어나 배에 병기를 싣고 이미 강어귀에 이르렀습니다. 또 몇몇 무리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원 사신[天使]이라 하고 詔旨가 있다고 칭하게 하여 이미 궁문에 이르렀으니, 장차 우리 君臣을 섬멸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삶과 죽음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에서 오히려 황제의 덕에 의뢰하여 조금이나마 변란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적의 무리를 잡았으나 다른 변란이 있을까 두려워 아

> 뢸 겨를이 없이 모두 법대로 처리하였으니 실로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 또 변방의 민들이 틈을 타서 망령되게 일어나거나, 혹은 간사한 자들이 왕래하며 우리의 실정을 어지럽게 할까 염려되었으므로, 關防을 두어서 출입을 삼가게 하였으며, 그 관리와 군사가 강을 넘어가서 위협하고 노략질을 한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닙니다. 그 죄인을 찾아내어 이미 나라의 법을 바로잡았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천지의 어진 마음을 넓히시어 천둥·번개와 같은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 라고 하였다.[88]

공민왕은 기철 등의 무리를 주살한 것은 그들의 반역 모의 때문이었다 하였다. 고려는 이미 세조 쿠빌라이 때부터 복속하였는데 기철 등이 원 황실과의 혼인 관계를 등에 업고 왕을 위협하고 제압하려 했으며 백성과 토지를 점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요직에 그의 심복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멋대로 하였고 심지어는 병기를 배에 싣고 예성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또 자신의 무리를 원의 사신이라 속여 군신을 섬멸하려 하였다.[89] 다행히 원 황실 덕분에 이에 잘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일이 급하여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처단하였으니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또 국경을 침략한 것은 변방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관리가 멋대로 국경을 넘어 들어가 노략질을 한 것이며 죄인을 찾아내어 처단하였으니 용서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90]

기철, 노책, 권겸 일당을 제거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국경을 침범한 것은 왕의 명령

---

88)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7월. "斬西北面兵馬使印�, 附表撒迪罕, 奏曰, '竊惟, 小邦邊處東極, 隋唐之盛羈縻而已. 世祖龍興, 灼知天命, 首先歸附, 世著微勞, 東漸恩澤日新月盛. 不意, 賊臣奇轍與盧頊權謙謀爲不軌, 生我禍階. 切詳, 轍等連姻掖庭, 假威大朝, 氣焰熏天, 脅制國主, 人有人民, 不奪不已, 人有土田, 不奪不饜. 臣畏天朝, 一不敢問, 群黎百姓怨豈在明. 轍等自知罪盈惡積, 人所不容, 而又妄意天下擾攘, 甲兵方熾, 一朝勢去, 身不能保. 乃謀自安, 務固其權, 中外官司皆置親黨, 凡曰要職無非腹心, 擅造兵器, 閑習射御, 公然爲之, 不小隱匿. 扇動訛言, 惑亂衆聽, 今年五月十八日, 召集無賴, 一時俱起, 舟載兵器, 已至江口. 又令數輩詐爲天使, 稱有詔旨, 已至宮門, 將欲殲我君臣以逞己欲. 安危死生間不容髮, 尙賴聖德, 粗能應變, 旣獲賊徒, 恐有他變, 不暇申聞, 俱致於法, 誠惶誠恐, 無地措躬. 又慮邊鄙之民乘釁妄動, 或有姦人往來, 亂我情實, 故置關防以謹出入, 而其吏士過江劫掠, 實非本意. 考其罪人, 已正邦典, 伏望弘天地之仁, 霽雷霆之怒.'"

89) 이러한 내용은 몽골의 허락 없이 기씨 일파를 제거한 것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철 세력이 동북면 지역에 갖고 있던 지역적 연고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있다. 이강한, 앞의 글.

90)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7월.

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방의 장수가 자가 마음대로 한 것이라 변명하였다.[91] 그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인당을 처형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한 장수를 죽인 것이었다. 일종의 희생양이었다.

한편으로 공민왕은 자신의 심복이었던 강중경을 제거한 것에 대해 보복하고자 한 측면도 있었다. 그것은 인당과 강중경의 경력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인당은 공민왕의 즉위에 별 역할을 하지 못했고[92] 공민왕의 元 체류시 隨從하지도 못했다. 또 기씨 일당의 제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당시 반원개혁의 추진 인물인 鄭世雲・車蒲溫・趙仁吉・安祐・黃裳 등이 강중경과 같은 연저수종공신으로 誅奇轍功臣에도 책봉된 무장들이라는 점이 그것을 말해준다.[93] 반면 강중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燕邸隨從功臣 2등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씨 일당의 제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 때문에 공민왕이 그를 신임하여 서북면병마사에 임명한 것이었다. 그런 그를 인당이 처단하였으니 공민왕이나 그 측근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공민왕이 강중경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은 죽은 그를 誅奇轍功臣에 임명하면서 "강중경은 몸은 비록 이미 죽었으나 공이 커서 잊기 어렵다"[94]라고 한 말에서도 짐작이 간다. 따라서 그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1등 공신에 책봉되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기철 일당 제거에 큰 역할을 한 睦仁吉, 李蒙古大 등이 1등공신에 책봉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민왕은 그를 즉각 처단하지 않았다. 대신 강중경의 후임을 임명한다는 구실로 서북면병마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였다. 즉 鄭暉를 西北面兵馬使로, 洪巨源・李思敬을 副使로 임명하였다.[95] 그런데 이 인사는 廉悌臣의 건의에 의한 것 같다. 인당이 강중경을 죽이자 국가에서 그가 도망칠 것을

91) 이규철도 인당이 압록강 건너의 8참을 공격한 것은 국왕의 승인이나 지시없이 이루어진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인당의 처형은 고려와 원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라 하고 있다. 이규철, 「공민왕대 대외정벌 정책의 추진과 시행」, 『역사와 실학』 제59집, 역사실학회, 2016, 81면 주11.
92) 민현구, 「고려 공민왕의 즉위배경」,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론총』, 지식산업사, 1981 참조.
93) 홍영의, 앞의 책, 2005, 86면.
94) 『高麗史』 권39 공민왕세가 8년 6월 정해. "姜仲卿, 身雖已死, 功大難忘."
95) 『高麗史』 권39 공민왕세가 5년 5월 기해.

우려하여 즉시 토벌하지 않고 염제신에게 명하여 계책을 써서 죽이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96] 정휘를 강중경의 후임으로 임명하여 그를 감시하는 한편 조용히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고의 대가로 參知政事에 임명하였다.[97] 그러나 곧바로 그를 처형하여 원에 사죄하였다. 자신의 측근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동시에 원과의 외교 회복에 그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에는 새로운 인물을 선발하여 서북면을 지키게 하였다. 즉 廉悌臣을 西北面都元帥로, 金之順·柳淵 등을 副元帥로 삼고,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貂裘]과 금대를 차등 있게 하사하고 도끼[鉞]을 주어 보내었던 것이다.[98] 인당을 죽이는 데 많은 협조를 한 염제신을 서북면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었다.

동북면 쪽에서는 조소생과 탁도경이 도망한 지역까지 쳐들어가 정벌하였다. 즉 千戶 丁臣桂가 군사를 거느리고 伊板嶺을 지나 女眞 군대와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크게 승리하여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으며, 그 괴수 帖木兒를 포로로 잡아서 머리를 서울에 전하였던 것이다.[99] 그리고 쌍성총관부 수복에 크게 협조를 한 이자춘에게 大中大夫 司僕卿이란 관직을 주고 집 1區를 하사하는 조치도 취하였다[100] 이로써 서북쪽으로는 압록강을 원과 우리의 국경으로 확정하였으며 동북쪽으로는 쌍성총관부 북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의 조치에 대해 원도 이를 수용하였다. 즉 공민왕 5년 10월 元에서 다시 撒迪罕[사데이칸] 등을 보내 고려를 특별히 용서한다는 취지의 조서를 전해왔다. 세조 이래 원에 복속하였고 혼인까지 하였는데 변방의 떠돌이 군대가 우리 영토를 넘어온 것은 큰 유감이지만 사신들을 보내 알아본

96) 李穡, 「高麗國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曲城府院君贈諡忠敬公廉公神道碑」, 『牧隱文藁』 권15.
97) 『高麗史』 권39 공민왕 5년 7월 정해.
98)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9월.
99)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9월.
100)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9월.

결과 이미 그 죄인을 처단하였음을 알았다 하였다. 또 기철의 반란 사건은 창졸간에 일어난 것이라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하였음도 상세히 보고 받았으나 왜 즉각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힐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미 지난 일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특별히 용서한다 하였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원의 명령을 잘 받들라 당부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101] 아마도 원도 더 이상의 분란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남방의 한인 반란군이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려를 또 하나의 적국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4. 맺음말

印瑞은 忠惠王 말년에 충혜왕 파를 원에 압송하는 역할을 하였고 忠穆王 대에는 密直使가 되어 王煦의 개혁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실패와 함께 관직에서 물러났다. 忠定王 대에는 군대의 총지휘관인 萬戶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왜구의 격퇴에 공헌하였다.

공민왕대에 이르러 그는 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먼저 그는 萬戶, 捕倭使의 직책으로 왜구를 격퇴하였다. 그러다가 공민왕 3년에는 아들인 印安과 함께 원의 남정군 출정에 참여하였다. 그 대가로 인당은 碩城府院君에, 인안은 延城君에 책봉되어 田柴科와 祿俸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물론 원을 돕는 행위였으나 원의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하여 돌아와서는 그 사정을 공민왕에게 자세히 보고함으로써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원의 내부 사정을 파악한 공민왕은 친원 핵심 세력인 奇氏 일당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영토 수복에 착수하였다. 공민왕은 비밀리에 자신의 뜻을 쌍성총관부에 전하였다. 이에 이성계의 아버지 李子春이 공민왕을 알현하고 협조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두 방면으로 영토 수복을 명하였다. 하나는 동북면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북면 방향이었다. 密直副使 柳

101)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10월.

仁雨를 東北面兵馬使로, 前 大護軍 貢天甫, 前 宗簿令 金元鳳을 副使로 임명하여 雙城 등 지역을 수복하게 하였다. 한편 印瑄과 姜仲卿을 西北面兵馬使로 삼고 신순, 유홍, 최영, 최부개를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 8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당은 燕邸隨從功臣이었던 강중경과의 불화로 그를 제거하였다. 이것이 후일 불행의 계기가 되었다. 이럴 즈음 석기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前 護軍 林仲甫가 충혜왕의 서자인 釋器를 받들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을 듣고, 곧 巡軍에 하옥하여 두고 죄를 조사하고 다스렸던 것이다. 이어 그는 원 나라의 연호인 至正 연호의 사용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정 속에서 인당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한편 서북면으로 출동한 인당은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婆娑府 등 3站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작전은 원의 군사 출동에 대비하는 한편 원에 오가는 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기철 일당의 제거나 쌍성총관부 공격 등의 고려 내부 사정이 원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고려에 오다 체포되었던 원의 사신이 도망하여 원에 돌아감으로써 고려의 내부 사정이 다 알려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원에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한 것에 대해 힐책하면서 대군을 동원해 침략할 것이라 위협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廉悌臣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당을 소환하고 그의 목을 베어 사과하였다. 국경을 침략한 것은 변방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관리가 멋대로 국경을 넘어들어가 노략질을 한 것이며 죄인을 찾아내어 처단하였으니 용서해 달라 하였다. 공민왕이 특별히 인당 한 사람만을 처형한 것은 자신의 심복이었던 강중경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었다. 이에 원은 고려의 사과를 받아 주었고 고려에서는 이에 감사하는 표문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인당은 무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나 공민왕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대가로 주체세력에 밀려 처형당하였다. 공민왕의 명에 의해 압록강 너머 원의 영토를 공격,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고려의 내부 사정과 원과의 외교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喬同印氏大同世譜』, 『牧隱文藁』,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元史』.

고명수, 「충렬왕대 怯憐口(怯怜口) 출신 관원—몽골-고려 통혼관계의 한 단면—」, 『사학연구』 제118호, 한국사학회, 2015, 233-270면.
김갑동 외, 『고구려 옛땅 회복의 꿈, 인당 장군』, 인당장군기념사업회, 2018.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제6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 197-231면.
김광철, 『원 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 정치』, 경인문화사, 2018.
김구진, 「북방문제」,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기덕,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 청년사, 1998.
김순자, 『韓國中世韓中關係史』, 혜안, 2007.
김혜원, 「고려 공민왕대 대외정책과 漢人群雄」, 『백산학보』 제51호, 백산학회, 1998, 61-120면.
민현구, 「정치도감의 성격」, 『동방학지』 제23·24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0, 97-140면.
_____, 「고려 공민왕의 즉위배경」,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론총』, 지식산업사, 1981.
_____, 「고려 공민왕의 반원적 개혁정치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제68호, 진단학회, 1989, 49-78면.
_____, 「고려 공민왕대 반원적 개혁정치의 전개과정」, 『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론총』, 일조각, 1993.
_____, 「고려 공민왕대의 '誅奇轍功臣'에 대한 검토」,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론총』, 일조각, 1994.
박용운, 「고려후기의 必闍赤에 대한 검토」, 『이기백선생 고희기념한국사학론총』, 일조각, 1994.
_____,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2009.
변동명, 「고려 충렬왕대의 만호」, 『역사학보』 제121집, 역사학회, 1989, 105-136면.
신안식, 「고려후기의 영토분쟁—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군사』 제9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77-112면.
신은제, 「14세기 전반 원의 정국동향과 고려의 정치도감」, 『한국중세사연구』 제2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9, 191-231면.
오기승, 「공민왕대 동녕부 전역(戰役) 고찰」, 『軍史硏究』 제134호, 陸軍軍史硏究所, 2012, 293-329면.
_____, 「高麗末 東寧府의 形態 變遷과 高麗 流移民」, 『역사민속학』 제46호, 역사민속학회, 2014, 91-129면.
_____, 「13-14세기 고려인 세력과 고려 왕실의 충돌」, 『한국사연구』 제181호, 한국사연구회, 2018, 71-102면.
이강한, 「공민왕 5년(1356) '반원개혁'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제6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183-231면.
이규철, 「조선초기 대외정벌과 대명의식」, 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공민왕대 대외정벌 정책의 추진과 시행」, 『역사와 실학』 제59집, 역사실학회, 2016,

75-102면.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이 영, 『잊혀진 전쟁, 왜구』,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2007.
이정란, 「정치도감 활동에서 드러난 家 속의 개인과 그의 행동방식」, 『한국사학보』 제21호, 고려사학회, 2005, 297-331면.
이정신,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제18호, 고려사학회, 2004, 273-302면.
이형우, 「고려 공민왕대의 정치적 추이와 무장세력」, 『군사』 제3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9, 27-68면.
_____, 「개혁군주 공민왕」, 『고려의 국왕』, 경인문화사, 2015.
장동익, 『고려후기 외교사연구』, 일조각, 1994.
정동훈, 「고려 사신의 몽골 잠치(站赤) 이용」, 『사학연구』 제134호, 한국사학회, 2019, 69-121면.
최종석, 「1356(공민왕 5)-1369(공민왕 18) 고려-몽골(원) 관계의 성격—'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歷史敎育』 제116집, 역사교육연구회, 2010, 233-271면.
홍영의,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염제신의 군사활동」, 『군사』 제2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1, 91-122면.
_____,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2005.

【Abstract】

The activities of Indang (印璫) during the early period of King Gongmin

Kim, Gap-Dong*

When King Gongmin (恭愍王) ascended the throne, Indang (印璫) defeated Japanese pirates (倭寇) as the position of Manho (萬戶) and Powaesa (捕倭使). Then, in the third year of King Gongmin's reign, he and his son Inan (印安) together joined the expedition to South Province of Yuan (元) Empire. It was, of course, an act to help Yuan Empire, but it was an opportunity to get a closer look at the inside of Yuan Empire. When he returned, he reported the situation to King Gongmin in detail, providing him with a background to carry out the reform.

King Gongmin (恭愍王) removed a group of people who rely on Yuan Empire. After that, he tried to reclaim his territory. He secretly conveyed his message to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Ssangsung. Lee Ja-chun, the father of Lee Seong-gye, pledged to meet King Gongmin and cooperate. King Gongmin ordered the conquest of the territory in two ways. One was in the northwest direction and the other was in the northeast. The top commander of northeastern territory was Yoo In-woo, while the top commander of the northwestern territory was Indang (印璫). King Gongmin ordered the In-dang to attack the eight station across the river. Around this time, Sukgi (釋器) rebellion broke out. It has been reported that Limjungbo is secretly seeking treason with Sukgi, the bastard of King Chunghye (忠惠王). King Gongmin then put the party of Limjungbo in prison. He then discontinued the use of an Yuan Empire era name.

In the meantime, Indang crossed the Yalu River with its soldiers and attacked and occupied three station, including the Pasaboo (婆娑府). The operation was designed to block traffic to and from Yuan Empire. It was a measure to prevent internal affairs of Koryo (高麗) dynasty from becoming known as Yuan Empire. However, the internal affairs of the Koryo dynasty became known when Won's envoy, who was arrested in Koryo dynasty, fled and returned to he Yuan Empire. Upon hearing the news, Yuan Empire sent envoys to scold King Koryo. Yuan Empire threatened to invade with a

* Professor, Dept. of History & Culture, DaeJeon Univ.

great army. King Gongmin then cut the throat of In-dang by Yeom Je-shin's plan and apologized. In response, Yuan Empire accepted an apology from Koryo. Koryo posted a diplomatic document thanking it.

At the order of King Gongmin, In-dang crossed the Yalu River and attacked and occupied the territory of Yuan Empire. However, the diplomatic situation of Yuan Empire and Koryo dynasty led to an unfair death. In our history he was a great longevity who was temporary but occupied the territory of China.

Keywords: Indang (印璫), Japanese pirates (倭寇), King Gong-Min (恭愍王), Pasaboo (婆娑府), Ssangsungchongkwang-Boo (雙城摠管府), Sukgi (釋器).

접수일: 2019.12.11.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06.